광주일보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사 **사 호**

혈액 부족한 것 맞아? 광주전남혈액원 무성의 대처 논란

5·18전남행사위 단체헌혈 추진에 "버스 없어 곤란" 거절 혈액원 측 "부서간 협의 부족으로 잘못된 정보 전달" 사과

전남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5·18 당시 헌혈을 통한 나눔 정신을 계승하고 코로나19로 인 한 혈액 부족 사태에 도움을 주기 위해 5~6월에 걸 쳐 단체 헌혈을 계획했지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 남혈액원의 무성의한 대처로 무산됐다.

10일 전남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5·18 전남행사위)와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두 단체· 기관은 지난 4월 초부터 단체 헌혈을 위한 업무 협 의에 들어갔다.

5·18 전남행사위가 코로나로 인해 혈액 수급이 비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5·18민주화운동 42주기를 맞아 '5~6월 단체 헌혈'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혈액원에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5·18 전남행사위는 전남도 및 22개 시군, 각 지방의회, 전남도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50여 기관·단체가 참여해 5·18 기념행사와 정신 계승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다. 5·18 전남행사위는 이러한 단체 구성과 성격 등을 알리며 "행사위 단체 관계자, 전남도 및 의회 공직자, 각 시군 공무원, 일반 도민 등을 대상으로 헌혈 참가자를 모아5월부터 6월까지 단체헌혈을 하겠다"며 헌혈버스배자 등 협조를 요청했다.

그런데 5·18 전남행사위측 예상과 달리 혈액원 측은 업무 협조에 줄곧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이에 5월 헌혈 행사를 앞두고 지난달 22일 5·18

전남행사위 관계자가 혈액원을 직접 찾았다. 전화 등 비대면 업무 협의에서 진척이 없자 '2개월 간 헌혈버스를 25차례 배차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거듭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혈액원 측에서 돌아온 답변은 예상 밖이

광주·전남에서 운영하는 헌혈버스는 총 7대이지만, 모두 이 기간에 예약이 꽉차 있고 6월 22일 이후에만 예약이 가능하다고 '단칼에 물리쳤다'는 것이다. 허탈한 마음을 안고 발걸음을 돌린 5·18 전남행사위 관계자는 재차 혈액원 측에 사업 취지를 설명하며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튿날 혈액원을 찾아갔다가 다시 한 번 깜짝 놀랐다.

응대한 직원이 바뀌었을 뿐인데 '2개월간 헌혈버 스 배차 일정이 꽉차 있다'던 혈액원 측 전날 답변 과 달리 "헌혈버스 배차가 가능하다. 일시와 장소를 알려달라"고 호응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5·18전남행사위 측이 "혈액원 측의 거짓말, 무성의 업무처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문서로 달라" 고 항의하자, 사과 메시지를 담은 광주전남혈액원 입장문을 지난 27일 보내왔다는 것이다.

혈액원 측은 5·18전남행사위에 보낸 입장문에서 "혈액원 부서간 협의(소통) 부족 등의 원인으로 5·18행사위 측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고, (결과적으로) 무성의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게 대응해 불쾌감



10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헌혈의 집 충장센터 앞에 헌혈을 독려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을 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혈액원 측 공식 사과에도 5·18전남행사위는 "제 대로 된 사과가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용운 5·18전남행사위 집행위원장은 "도심에 헌혈의 집 이 있는 광주와 달리, 전남에는 순천·여수·목포에 만 있어 헌혈버스 도움 없이는 도민들의 헌혈이 쉽지 않다"며 "혈액원 측이 특히 특정 종교단체에는 지난달 18~21일 헌혈버스를 21차례나 보냈지만 5·18행사와 관련해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혈액원 관계자는 "일부 직원이 헌혈버스 배차 일정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등 성의있게 대응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다. 더욱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겠다"면서도 "거짓말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5·18 추모 분위기 달아오른다

이달 민주묘지 참배객 1만여명 육박…전년비 30% 늘어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1주일여 앞두고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는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2년동안 이어지던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되자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5월 영령을 추모하는 분위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다.

10일 오전 영령들의 안식처인 국립 5·18민주묘 지는 학생들이 '민주의 문'을 통과해 참배광장을 가 득 채울 정도로 추모 열기로 가득했다.

다만 예년처럼 민주로 양옆의 가로수에 줄지어

내걸렸던 사회 각계단체의 추모 현수막이 눈에 띄게 줄었고, 5월단체의 내홍으로 민주의 문 앞에서 매년 진행하던 추모리본 묶기 행사는 진행되지 않

그럼에도 추모의 글귀를 적은 수천 개의 노란색, 흰색, 분홍색 리본이 300m에 이르는 민주묘지 정 문부터 '민주의 문' 구간에서 참배객을 맞는 풍경은

국립5·18민주묘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까지 문을 닫았던 '유영봉안소'와 '5·18 추모관'의

문도 활짝 열고 추모객들을 맞이했다.

묘지를 찾는 참배객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립 $5\cdot18$ 민주묘지에 따르면 올 $1\sim4$ 월까지 총 7만 $5\cdot44$ 0 명이 묘지를 찾아 전년 같은 기간보다 87.6%(4만 214명) 증가했다.

5월 들어서도 9일까지 벌써 9557명이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30% 늘었다. 휴일인 14, 15일과 당일인 18일에는 추모객들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명록에는 서울·부산·인천 뿐 아니라 미국에서 온 참배객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추모의 글귀가 눈길을 끌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관계자는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학교의 단체 추모가 늘고 있고, 가족단위 추모객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기자 jusbh@kwangju.co.kr

'가짜 건강검진 공가'로 개인용무 보고 출장서류도 없이 여비 1400만원 주고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전남문화재단 감사 적발

건강검진 받는다며 공가를 낸 뒤 정작 검진을 받지 않고 개인 용무를 보는 공무원들의 부적정한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전남바이 오산업진흥원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직원 8명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1차례에 걸쳐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를 내고도 검진 대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개인 용무를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가짜 건강검진 휴가'가 적발된 것은 진흥원 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전남도는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에서 도 같은 내용을 적발했었다. 농업기술원 직원 13명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7차례 에 걸쳐 건강검진 공가를 내고 검진 대신 개인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중 8명에 게는 연가 보상비(107만원)까지 지급했다는 게 전남도 감사 결과다.

이외에도 바이오산업진흥원의 경우 2019년

부터 3개월이상 연체된 장비사용료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방치하다 징수권 소멸시효가 끝나 45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받지못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6개월 이상 임대료 등을 내지 않은 18개 기업들에 대한 추가 조치도 하지 않아 결국 체납한 돈을 받지 못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결과까지 발생했다.

업무성격상 작업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한 규정과 달리, 실험실 등 생산부 서 근무자들이 아닌 직원들에게도 일상근무복 지급 예산을 책정하면서 정작 생산부서 근무자 에게 피복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도 빚어졌 다.

전남문화재단도 출장을 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없는데도 11명에게 1400여만원의 여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필수 자격증 보유자나 경력자가 아닌 응시자격 미달자를 최종 합격자로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조선대병원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

'직업병 안심센터'가 광주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0일 조선대병원 국책사 업센터에서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고 밝혔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전국 7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돼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 할을 담당한다. 이날 광주를 비롯해 전국 7곳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직업성 질병은 한 가지 직업에 오래 종사한 노동 자들이 특수한 작업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됨으로써 얻게 되는 질병을 말한다.

안심센터로 지정된 조선대병원은 광주·전남·전

북·제주 지역을 포괄하는 여러 협력병원(목포기독병원 등 7개소)과 업무협약을 맺고 직업환경의학과·응급의학과와 호흡기내과 등 주요 직업병 관련과목 및 암센터까지 포함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노동자는 먼저 병원 진료과 또는 응급실에 방문하면 된다. 초기 진단 단계에서 의사들이 질병과 직업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면 직업환경전문의에게 연계하게된다. /정병호기자 jusbh@kwangju.co.kr

